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림을 그렸던 화가
『프리다 칼로』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지만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은 뜻밖에 일들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었던 화가가 프리다 칼로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때문에 화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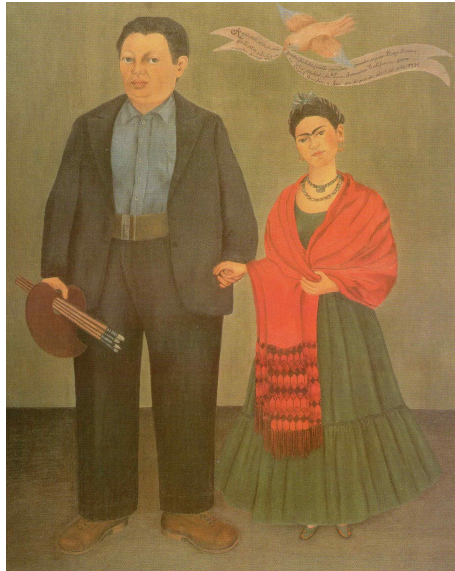
그림을 잘 그렸지만 화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프리다는 1925년 남자친구와 함께 코요아칸 행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 버스가 전차와 충돌해 프리다가 중상을 입은 것이다. 의사는 프리다가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프리다는 기적같이 살아남았다. 3개월간의 입원치료가 끝났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프리다는 척추가 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척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누워있어야만 하는 병원생활과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프리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멕시코 민중미술과 인디오 고유문화를 접목시킨 고유의 조형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프리다가 멕시코인들의 전통양식에서 조형언어를 찾았던 것은 당시 정부주관으로 문화개혁 운동이 전개되어 예술가들은 유럽의 회화를 모방했던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프리다는 당시 멕시코 젊은 화가들의 우상이었던 벽화가이자 공산주의자였던 리베라를 깊이 존경하고 그의 작품 세계에 빠져 있었다. 프리다는 그를 만나 자신의 재능을 평가받고 싶었다. 리베라가 찬탄을 보내자 프리다는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으며 적극적으로 그에게 구혼을 한다. 정치 성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1929년 2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한다.

프라다가 그토록 원했던 디에고와의 결혼을 그린 작품이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결혼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프리다는 붓과 팔레트를 들고 있는 리베라를 위대한 화가로 표현했으며 자신은 화가의 아내로만 묘사했다.

프리다는 결혼 후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스스로 화가라고 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리베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행복해했다. 하지만 리베라의 끊임없는 바람기는 프리다를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리베라와 여동생의 불륜관계를 알고 난 후 이혼을 결심한다. 이혼 후 프리다는 리베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펼쳐 나간다.



<프리다와 디에고 리베라>-1931년, 캔버스에 유채, 100×79, 샌프란시스코 근대 미술관 소장

프리다가 리베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린 작품이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다. 이혼한 그 다음해에 제작한 이 작품은 프리다의 자화상 중에서 특이한 것으로 대부분 그녀의 자화상은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작품은 정장 차림의 남성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프리다의 자화상은 그녀의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삭막한 풍경이나 적막한 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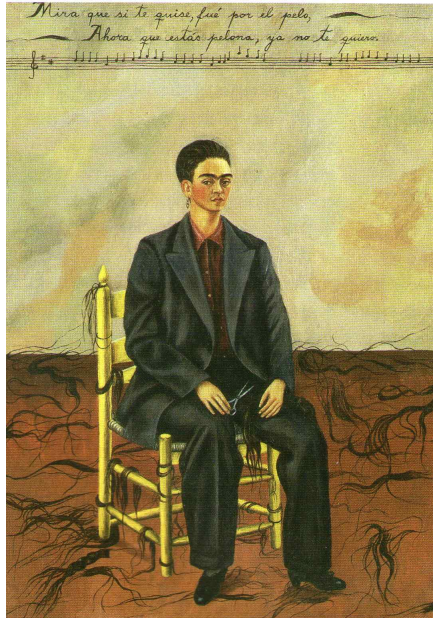
남자용 셔츠와 구두를 사이즈가 큰 양복을 프리다 칼로가 손에 가위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들이 흩어져 있다.

그림 위에는 ‘이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머리카락 때문이야.’

이제 당신은 머리카락이 없으니
 난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아.’
 라는 구절은 1940년대 유행하던
 멕시코 대중가요를 인용했다.

프리다는 이혼으로 새롭게
 얻은 독립을 표현하기 위해 그
 녀는 리베라가 원했던 여성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하고 머리
 카락을 잘랐으며 리베라가 사랑
 했던 테우나 멕시코 전통의상을
 벗고 남자용 정장을 입었다. 몸
 에 맞지 않는 커다란 남성용 정
 장은 프리다의 독립에 대한 두
 려움을 나타낸다.

프리다 칼로<1907~1954>
 는 멕시코 전통주의 양식을 사
 용해 정치적 투쟁을 담아냈다.
 하지만 프리다는 정치 성향 때
 문에 죽기 일 년 전에 멕시코에
 서 개인전을 열수 있었다. 전시
 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프리다는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다리의 종양 때문
 에 다리를 절단한다. 다리 절단은 프리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게 만든다. 프리다는 재결합한 리베라
 곁에서 숨을 거둔다.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1940년, 캔버스에 유
 채, 40*27,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